

시민사회, SK·LG 재벌대기업에 맞선 전면전 선포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5.01.15 13:45

“사회적 힘 모아 반드시 응징할 것” 1/15 SK-LG 비정규직 현안 해결 민주노총 긴급집회



▲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종료·학계 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SK-LG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며 통신 비정규직 무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노숙농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통신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재벌 순위 3~4위인 국내 굴지의 통신사에서 일하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부터 투쟁을 벌여오는 동안 수차례 끌려 나가고, 222명이 연행되고, 2명(LG유플러스 1명, SK브로드밴드 1명)의 노동자가 구속됐지만 거대재벌 진짜사장들은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통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이 1월 15일 오전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개최됐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이 통신대기업 비정규직 문제를 받아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주 부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본은 끄떡도 안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고 오늘 중으로 SK와 LG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더 강력한 투쟁으로 그들을 궁지로 몰겠다는 계획”이라면서 “SK와 LG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없었고, 연차와 월차, 주5일 근무제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이나 다름 없었다”고 전했다.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받아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주봉희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할 것이며, 다음주 월요일 상집에 이어 29일 중집에서 16개 산별연맹과 16개 지역본부와 함께 SK와 LG 동지들의 투쟁을 위해 투쟁기금과 희망펀드를 결의해 여러분 투쟁의 실탄이 되게 할 것이며 끝까지 지원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석운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SK와 LG라는 거대 공룡재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내몰렸는지 몰랐고, 일반 국민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어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비난했다.

박 상임대표는 “회사 일을 하면서 유류비와 자재비, 통신요금, 4대보험을 본인이 부담하고 심지어 근무하다 다치면 퇴사해야 하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국내 3위 4위라는 SK와 LG의 현실”이라면서 “인터넷 사업과 아이피티비 사업, 집전화 등으로 얻는 엄청난 이익의 부스러기만 공유해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비인간적이고 치사한 짓이며,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에게 이 실상을 적극 알린다는 것이 첫 번째 기조이며,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만이 아니고 전국 지역별 풀뿌리방식으로 대책위를 만들어 인터넷 가입자들이 직접 나서 활동하고, 국회와 방송통신위,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가 나서게 만들고, 치사한 경제비리로 구속된 재벌의 가석방은 어불성설임을

사회여론화하는 한편 2개월이나 월급을 못받은 파업노동자들을 위해 십시일반하고 희망연대 채권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또 “민주노총 만이 아니고 지역 소비자들과 각계각층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2주 집중교섭을 하는 동안 사회적 여론 몰아치기를 통해 해결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개월을 거리에서 힘들게 고생한 노동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통신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알리는 피켓을 들었다.

“SK브로드밴드가 직접나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하라!”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인간답게 살고싶다!”

“진짜사장 SK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SK윤리경영은 노동자인권 유린인가!”

“노조탄압 고용불안 SK브로드밴드 규탄한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노동자가 분노한다!”

“비정규직 없는세상 SK브로드밴드가 앞장서라!”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이경재 지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경재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장은 “2014년 3월 30일 노조를 만들기까지 기사들과 내근직 노동자들이 누군가 노조를 만들기를 기다려온 세월이 10여년”이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근로기준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도 몰랐고, 산재보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도 산재적용이 되는지도 몰랐는데 회사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노동조합 요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는데 아무 이해관계 없는 경총을 내세워 10개월 간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십 수년 일한 기사들이 자신의 직원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산재 중인 기사를 해고하고, 4대 보험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것을 보면서 회사의 이윤과 이미지와 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우리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노조가 힘겹게 싸우면서 길바닥에 나앉은 조합원들은 생계를 박탈당해 분유값을 내지 못한다”고 말한 지부장은 “그래도 왜곡된 노동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와 심정으로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이후 생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현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장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처음 하면서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곳은 민주노총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국가도 노동부도 사회 그 누구 하나 우리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뉴스뿐이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동부에 가면 눈치만 보고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만 했고 우리 간부와 조합원들은 수없이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면서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노동자는 하나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 준비가 덜된 민주노총에도 조금 따끔한 소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경산현 지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경산현 지부장은 “언제 잘릴지, 언제 회사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에게는 고용승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대기업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관심을 갖고 하청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존재들은 헤어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문별 연대발언이 진행됐다.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정광진 좌파노동자회 서울위원장은 SK와 LG그룹에 대해 통신 대기업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정성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활동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4대재벌이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면서 “SK그룹과 LG그룹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국내 3,4대 재벌에 맞선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한국사회 최우선 노동 의제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이제 원하청자본과 공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짜 사장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이만큼 부각시킨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시간 단축,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 단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등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는 소박하다”면서 “준법 수준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요구일 뿐”이라고 전했다.

“6개월 간 교섭과 투쟁을 했지만 진짜사장인 SK와 LG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시민사회는 “일방적인 업무 불이익, 표적탄압, 업체변경 과정에서 조합원 대량해고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오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하는 날까지 연대하겠다는 노동-시민사회-정치-종교-법조-학술-문화-지역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그룹 모토인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거스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 탄압을 일삼아온 SK그룹과 LG그룹에 즉각 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체 교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 뒤에 숨지 말고 원청사용주가 책임 있게 나서야 장기파업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면서 “최태원 회장 가석방을 비롯한 재벌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 특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사법정의를 뒤흔드는 어떤 논의도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는 “SK그룹과 LG그룹에 대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하고 “이번주까지 비정규직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따져물으며 사회적 힘을 모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는 연대단위를 너머 투쟁 주체로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SK와 LG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 구호를 외쳤다.

“진짜사장이 책임져라!”

“SK가 책임져라!”

“LG가 책임져라!”

“가석방 어렵었다 비정규문제부터 해결하라!”

“파업투쟁 승리하자!”

“현장으로 돌아가자!”

이어 민주노총은 오늘(1월 15일) 오후 5시 을지로 SK텔레콤 앞에서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책대책 폐기! SK-LG 비정규직 현안 해결!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